

'박 팀장아, 사람도 고쳐 쓸 수 있다니까!'



“최 과장! 왜 아직도 오탈자가 이렇게 많은 거야? 리뷰는 하고 나한테 올리는 거 맞냐?”

오늘 아침에 내 입사 동기인 박 팀장이 핏대 올리며 자기 팀 최 주임에게 한 말이다. 10시에 상무님께 보고 예정이던 보고서의 오탈자가 문제였던 것. 보고가 끝나고 담배 피우는 자리로 나를 불렀다.

“그래서 선배들이 했던 말이 맞는 것 같다. ‘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’라는 거 말이야.”

나도 많이 들은 말이다. 타고 난 성격은 쉽사리 안 바뀐다고. 아버지를 원망하실 때 어머니가 하신 말도 있다. “씨도둑은 못하는 법이다.” 그런데 성격이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행동은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. 예전에 같은 팀에 있었던 선배 하나는 최 과장 이상으로 업무 처리에 구멍이 많았는데 결국은 고치더라 말이지.

아! 맞네! 맞아! 성격이 변하는 거랑 행동이 변하는 거랑은 간극이 있어.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아. 하지만 행동은 변화될 수 있지. 그러기 위해서 리더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거야. 관점이나 마음가짐을 바꾸도록 설득해야 해. 본인 스스로가 주의하도록 만드는 게 리더십이지. 내일 출근하면 박 팀장한테 얘기해줘야겠어.

‘박 팀장아! 사람도 고쳐 쓸 수 있어!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면 말이야!’

I 필자: 에밀 팀장 in 팀장클럽(café.naver.com/teamleadersclub)